

# 국내외 공항의 개발소요기간 사례 비교

임영태, 홍정열

## I. 서론

세계의 항공운송시장은 항공협정, 자유화, 글로벌화 등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거대한 축으로 미래 항공시장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항공시장이 성장하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항공수요 및 역내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시아 각 국에서는 항공수요의 처리와 항공허브 구축 마련의 일환으로 신공항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의 신공항 개발 사례를 검토하여 공항개발소요기간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 II. 국내외 공항의 개발소요기간

### 1. 국내 공항의 개발소요기간

#### 1)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은 1989년 교통부가 “수도권 공항 개발의 시급성”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보고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10개월간 “신국제공항건설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1990년 6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신불도, 용유도 일원을 건설입지로 선정하였다.

건설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교통부에서는 신국제공항 건설기획단을 발족

하고 1991년 5월과 12월에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한국공항공단법을 제·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은 법적 근거 하에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세 번의 고시변경이 있었고, 2000년 6월 공항 기본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종합시운전과 시험 운영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29일 개항하게 되면서 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약 11년 9개월 만에 운영이 시작되었다.

## 2) 양양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장래 남북관계 개선 및 금강·설악권 국제관광지 개발에 대비한 항공교통기반의 마련을 위해 개발되었다. 1986년 “동해안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1994년 4월에 “영동권 신공항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다음해 2월에 학포리 일대를 양양 신공항 건설입지로 확정하였다. 이후 토목부문 및 여객터미널 등의 건축부문 실시설계가 1997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997년 1월과 12월에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가 각각 착수되었다. 약 3~4년에 걸친 공사가 2001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공항 및 시설물 인수 작업이 시행되었으며, 2002년 4월 3일 양양국제공항은 개항하였다. 공항 개항은 타당성 조사 이후 약 15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공항의 토목공사가 착수된 후 5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 3)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지역의 국제관문으로서 중부권의 인천국제공항, 동남권의 김해국제공항과 함께 항공교통망의 삼각축을 형성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및 목포일원의 호남권 항공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공항시설의 확장이 요구되어 개발되었다. 기존 광주공항 및 목포공항은 항공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운항제약으로 인해 공항확장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공항들을 대체하기 위한 공항의 개발을 위해 1990년 1월 “동·서해안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94년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고시되었으며 1997

년부터 약 2년 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시행하여 1999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었다. 그러나 2000년 5월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 같은 해 9월과 2002년, 2004년에 활주로 장애물 제거,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개항이 지연되었고 타당성 조사 실시 이후 약 17년 10개월 만인 2007년 11월 8일에 무안국제공항은 개항되었다.

<표 1> 국내 신공항 개발 연혁 및 소요기간

구분	인천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주요연혁	1989. 6 타당성조사 1990. 6 건설입지선정 1992. 6 기본계획고시 1992.11 부지조성착공 1996. 1 공항건설착공 2000. 6 공항건설완공 2001. 3 공항개항	1986. 6 타당성조사 1995. 2 후보지선정 1996. 2 기본계획고시 1997. 1 공항건설착공 1997. 2 실시설계고시 2002. 4 공항개항	1990. 1 타당성조사 1994. 2~1999. 2 실시설계, 기본계획고시 2000. 5 고시변경 1999.12 공항건설착공 2007.11 공항개항
개발부지면적	11,724,000m <sup>2</sup>	2,446,292m <sup>2</sup>	2,565,489m <sup>2</sup>
타당성~ 개항소요기간	11년 9개월 소요	15년 10개월 소요	17년 10개월 소요
부지조성~ 개항소요기간	8년 4개월 소요	7년 2개월 소요	-
건설착수~ 개항소요기간	5년 2개월 소요	5년 3개월 소요	7년 3개월 소요

## 2. 국외 공항의 개발소요기간

### 1) 일본 간사이공항

일본의 간사이공항은 증가하는 일본 관서지역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사카만 해상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만든 해상공항이다. 1981년 운수성, 오사카, 와카야마, 효고현에 “간사이공항건설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지역개발계획서” 등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공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1984년 간사이국제공항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적극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1989년에는 물막이공사, 1993년에는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듬해에 인공섬 건설이 완료되고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연육교와 공항연결 철도 등이 개통되면서 간사이공항은 개항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최초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만든 해상공항인 간사이공항은 약 13년간의 개발소요기간을 거쳐 1994년 9월 4일 개항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 2) 홍콩 첵랍콕공항

과거 홍콩의 대표국제공항인 카이탁공항은 수용능력의 한계 도달과 공항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안전문제로 인해 신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란타우섬 북쪽지역의 첵랍콕을 매립하여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1989년 홍콩총독 David Wilson경이 “첵랍콕신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첵랍콕공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정식으로 “신공항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으며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해저 터널, 공항연결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등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건설공사가 진행되었다. 1998년 6월 고속전철이 개통되고 계획발표 후 약 9년 만인 1998년 7월에 첵랍콕 공항이 개항하였다.

## 3) 싱가포르 창이공항

1975년 싱가포르 정부는 연간 400만 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던 Paya Lebar 공항의 용량 한계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공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창이지역에 공항 개발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후 6년 만인 1981년 7월에 창이공항이 개항되었으며 동남아시아의 허브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은 21세기 동남아시아 지역의 허브공항 역할 수행을 목표로 구상되었다. 1991년 4월에 쿠알라룸푸르 도심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의 세팡 구릉지대에 공항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제기획부, 교통부, 건설부와 K.L.International Airport Berhad 등이 공동으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8년 6월 30일 개항하면서 공항의 공사기간은 약 7년이 소요되었다.

### 5) 태국 수완나폼공항

태국의 수완나폼공항은 1960년 초 처음 신공항 건설이 구상되었다. 그러나 16번의 정권교체와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되다가 1997년 미국 회사들의 컨소시엄이 설계를 따내 2000년에 비로소 설계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02년 1월 방콕 남쪽의 농응우 하오 지역에 공항개발을 착수하여 4년 8개월 만인 2006년 9월에 개항하였다.

〈표 2〉 해외 신공항 개발소요기간

구분	일본 간사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태국 수완나폼공항
개발부지면적	5,103,000m <sup>2</sup>	12,548,816m <sup>2</sup>	13,000,000m <sup>2</sup>	43,967,140m <sup>2</sup>	32,000,000m <sup>2</sup>
계획발표~ 개항소요기간	13년	9년	-	-	9년
건설착수~ 개항소요기간	6년	7년	6년	7년 2개월	4년 8개월

## III. 결론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을 대상으로 개발 소요기간을 검토한 결과 공항개발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개항까지는 평균적으로 15년에서 16년, 건설착수에서 개항까지는 약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신공항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건설착수에서 개항까지 약 6년이 소요되고 있으나 계획발표에서부터 개항까지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여건과 공항입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첵랍콕공항은 인천공항과 개발부지 면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발추진으로 계획에서 개항까지 9년의 기간이 걸렸으며 일본의 간사이공항은 개발부지 면적이 인천공항에 비해 절반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섬 개발로 인해 1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안공항은 계획의 변경, 사업의 중단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약 18년이라는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각 국가의 사회적 여건, 추진의지 그리고 공항개발 지

역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개발소요기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공항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적정개발시기는 공항의 규모, 공항입지의 지리적 여건,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소요기간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영태



홍정열